

시선

사설

개인이 정치의 주인이 된 시대
총학은 어쩌해야 하는가

바야흐로 SNS의 시대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SNS의 위력은 4·13 총선,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 국면 속에서 꾸준히 재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의 동반 낙선’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을 맞닥뜨린 우리학교 학생 사회가 새삼 되새겨봐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TV의 등장 이후 미디어학계는 대중매체의 절대적 영향력을 전제로 둔 다양한 수용자 효과이론을 내놓았다. 이런 이론들은 대중매체를 유의미한 정보의 단일한 유통 통로로 바라보며 대중을 의사결정에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파악했다. 하지만 4·13 총선,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이 예증하는 바는 ‘대중매체의 절대적 영향력’이라는 전통적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중은 주체적 판단능력을 지니며 네트워크상에 유통되는 정보를 자율적으로 판별·수용하며 필요시에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 견고히 조직화하는 존재가 됐다. 이른바 ‘샤이 토리(shy tory)’, ‘샤이 트럼프(shy trump)’라고 불리던 그간의 ‘숨은 표’들은 실은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와 주류 미디어 이론이 놓쳤던, 실재적이고 영향력 있는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의 이토록 명징한 징후 앞에서도 대중 앞에 선(혹은 서려고 하는) 정치적 인물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우가 잦다. 대중의 뜻이란 적극적인 탐색 없이는 그 실체를 명확히 보기 어렵고 대중의 뜻을 진정성 있게 갈구하는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치인에게 이는 마치 허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치인이 대중을 지향하는 대신 자기 소속집단 안에 파묻히곤 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소통 부족’의 모습은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서울캠퍼스에서는 특정 공약에 대한 구성원의 의구심과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캠퍼스에서는 현 총학생회장 임기를 2개월 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연임을 위해 중도 사퇴를 강행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그렇게, ‘단선은 곧 당선’이라던 학생사회의 주요한 고정관념 하나가 무너졌다. 작금의 대중이 그러하듯, 경희대학교 학생들 역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속고한다. 그들은 선본이 제공하는 정보에 소위 ‘휘둘러’는 존재에서 벗어나 어떤 후보자가 왜 당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로 정치 집단화된 존재다. 이제 그런 학생들의 대표로 선다는 것은 곧 학생 개개인의 뜻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됐다.

바야흐로, 대표자의 아우라가 무너진 시대, SNS가 대중매체를 능가하는 시대다. 개별 구성원이 저마다 정치의 주체로 도약한 이 시대에 ‘정치’의 양상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사회가 ‘총학생회’에게 던지는 매서운 질문일 것이다.

경영대학 연합학술제
우리학교 ‘M1492’ 최우수상

미디어 여론동향 2016. 11. 21~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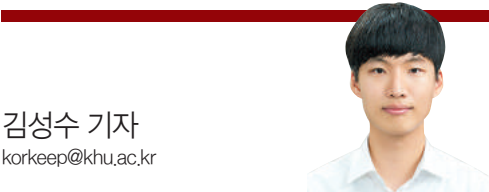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24일 오비스홀에서 우리학교,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총 4개 대학의 ‘경영대학 연합 학술제’가 열렸다.(제2회 경영대학 연합학술제 ‘ACADEMI KKHUS’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6.11.28) 학술제에서는 회칙 문제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방법과 해결방안 제시를 주제로 경쟁PT가 진행됐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빌리오와 줄리엣’팀은 자취생들이 방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차료를 지불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학교 ‘M1492’팀은 음식점 등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이 주의 주제 -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문제

‘무지’는 ‘무책임’일 뿐이다



김성우 기자
korkeep@khu.ac.kr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실수를 가버려 여겨서는 안 된다. 실수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실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실수에 따른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때로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목소리를 아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관대해질 수 있을까.

이번 2017학년도 국제캠퍼스 학생회 선거에선 반복된 실수로 인해 진행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각 단과대 선거에서는 ▲투표함 봉인 서명 실수 ▲투표함 열쇠 뒤바뀜 ▲선거 결과 파일 유실 등이 일어났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투표함이 뒤바뀌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사소한 실수’에서 말미암은 문제들이었다. 바뀐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실수를 저지른, 선거를 관리한 책임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한번만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인 실수는 선거의 막바지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개표 과정에서 터졌고, 선거 관계자들은

투표함을 옆에 두고 기나긴 회의를 해야 했다. 공정한 선거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선본, 후보자, 개표를 지켜보는 언론 등 너나 할 것 없이 책임감 있게 과정에 임해야만 문제없이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다.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책임자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는 선거에 관련된 모두가 나눠가져야 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문제를 빚고 난 이후 선관위의 태도였다. 그들은 각 단과대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보자면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현 정부는 5분 남짓의 대국민 담화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여나 그들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과문에서는 하나같이 “개표 진행 과정에 대한 속지가 미숙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현대민주사회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무지는 무책임일 뿐이다. 선관위는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앞으로 선거에서는 여태 빚어진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관위 장에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을 요구한다.

제시했다. 2017학번을 선발하는 수시 시험이 차츰 치러지며 한 해가 가는 감상에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이 들썩였다. ‘**경희대 합격했어요**’라는 글(**#경희학****18395**, 2016.11.29)의 글쓴이는 ‘이제 경희인 ... 떨리네요’라고 입시 합격을 전했다. 580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우사세, 시민교육, 인가탐의 노예가 또 하나’, ‘작년의 날 보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첫 후배를 맞이하는 16학번의 감****상**도 있었다.(**#경희학****18279**, 2016.11.24) 글쓴이는 ‘곧 또 다른 새내기가 들어온대요’라며 ‘제가 새내기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한번이라도 더 외쳐볼게요, 나는 새내기다!’고 썼다. 388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라’, ‘98년생이 벌써 대학생이라니’ 등의 의견과 가는 세월에 대한 넋두리를 남겼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2016 BIM AWARDS’에 대거 입상했다.(**건축학과 학생들, ‘2016 BIM AWARDS’ 5팀 수상/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11.24) ‘BIM AWARDS’는 컴퓨터를 활용해 건설 설계부

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모델링하는 첨단 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분야의 국내 최대 공모전이다. 건축학과 학생 5팀은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관상을 수상한 배기민, 주유진, 진인수 학생은 도시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역 부지를 선정,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난 여수의 이미지를 건축물에 접목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희대 국제대학교 선플재단이 22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선플재단-경희대 국제대학 ‘선플운동 실천협약’**, 공식 봉사활동 인정/YTN 외, 2016.11.22) 경희대 국제대학교와 선플재단은 ‘선플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국내 대학 최초로 선플 달기 활동을 자원봉사 학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체결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칭찬과 응원의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시작된 ‘선플운동’에는 7천여 개 학교와 6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학내 민주주의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세시봉

기호웅 (뉴스총괄팀장)



매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놀라곤 한다. 그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 국민들은, 어느 위정자가 말했던 것과 달리 ‘개·돼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폭력 없는 평화적인 시위모습을 보면 성숙한 시민의식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잠잠했던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에 다시금 희망을 갖는다.

학생자치의 문제는 어떻게? 국내정치는 중요하고 학내사안은 그렇지 않을 리 없다. 최근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사들을 정리할 때 마다 아쉬운 점들을 많이 느꼈다.

대부분은 대학주보 기자로서 더 많이 공론화할 수 있는 기사를 쓰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마녀사냥 식으로 관계자 신원을 파헤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또는 부조리한 모습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며 침묵한다.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이미 어디서부터 손써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침묵 속에 민주주의는 없다.

종종 우리학교의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그리고 ‘생활의 민주화’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체적인 태도 없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학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학생’인 우리가 우리 문제를 타인에게 맡기고서는 자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 ▲교수, 강의실, 실험 실습비 등 교육환경 문제 ▲카페, 식당, 기숙사 등 생활환경 문제 등 학교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바꿀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학내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싸늘하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아질수록 이를 이끌어갈 학생회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이번 2017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양 캠퍼스의 단종 총학생회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단과대학 선거에서 경선은 보기 어려워졌고, 3개 단과대학(정경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에서는 후보가 없어 선거조차 치르지 못했다. 단선도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 총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끌어나가겠지만 선장 없는 학생회의 모습은 바람 앞의 등불 같다.

정치란 멀리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속한 집단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시작이다. 학내 사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 자치는 정치적 첫 경험이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보다 좋아질 모습을 기대한다. 새롭게 등장할 총학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주보의 모습을.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